

청년이 힘...화순군 지역소멸 극복 총력

만원주택 2026년까지 매년 100호 청춘 신작로·청년하우스 건립 등 주거·일자리·보육 지원 다양한 정책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모범 사례인 만원 임대주택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린 화순군이 이번엔 '청년의 힘'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민선 8기 3년차를 맞아 현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만원 임대주택 공급은 전반기 200호에 이어 하반기에도 2026년까지 매년 100호씩 200호를 공급해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 주거비 부담 해소로 주거 안정을 이끈다.

새롭게 조성된 청춘 신작로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마련된 청춘 신작로 일대에서 매주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무대 제공을 통해 청춘 신작로가 공연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청년하우스 건립·운영에도 나선다.

청년하우스는 화순읍 만연리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9천600만 원을 투입해, 2021년 착공 2023년 12월 건립 완료하였으며 오는 8월부터 청년들의 취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군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젊은 도시 화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18-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무주택자 50세대를 매년 선정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 납입액(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1세대당 900만원 한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주거 안정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고생 각 20명을 공개 선별해 방학 중 해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2백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한다.

구북규 화순군수는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일자리 제공 그리고 보육과 교육까지 화순군이 책임지는 정책을 확대해 인구소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화순군에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지난 29일 장흥에서 열린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 관광객과 군민들이 '황금물고기(대왕장어) 잡이래'에 참여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물축제, 세계적 축제 발돋움

69만명 방문 9일 일정 마무리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가 9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축제기간 70만명에 이르러는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축제는 'ALL water 신나는 장흥 물축제'라는 슬로건과 함께 보다 젊어진 축제·세계인의 축제로 도약을 선언했다.

태국정부관광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개막식에 태국 송끄란 축제 예술팀을 초청해 공연하는 등 세계적인 축제 반열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존 워터파크 파티에 미디어 영상 쇼를 접목한 글로벌 워터월드와 장흥 록 페스티벌도 호평받았다.

개막일인 지난 달 27일 '지구 온난화 타파! 치유의 물, 건강의 물, 장수의 물 장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삼수대접 거리 퍼레이드에는 1만 5000명이 넘는 인파가 참여했다.

지상 최대의 물싸움, 대왕장어를 잡아라, 불

꽃 대전, 수상자전거·우드보트·디스코팡팡 등 물속에서 펼쳐지는 각종 프로그램도 여전한 인기를 자랑했다.

입장료와 공연이 모두 무료인 데다가 각종 체험료도 2천~7천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했고 음식값과 중량을 누리집에 사전 공개해 축제장 바가지요금도 근절했다.

장흥군은 해마다 수익금을 기부하는 '착한 축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올해는 유니세프에 3000만원을,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장흥군 나눔복지재단·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 1000만원을 기탁했다.

올해부터는 환경을 지키는 축제를 위해 행사장 내 먹거리 부스에서 다화용기를 사용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대한민국 여름 대표축제를 넘어 글로벌 축제로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원봉사자와 지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부=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이상의 합평군수 등이 지난 1일 열린 '종자의 날' 선포식에서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합평군 제공)

합평군 '제1회 종자의 날' 기념식...전국 지자체 최초 지정

2010년부터 국화 22개 신품종 등록

국화축제로 널리 알려진 합평군이 전국 최초로 매년 8월 3일을 '종자의 날'로 선포하고 지난 1일 제1회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종자산업이 그린 바이오산업으로서 기후변화로부터 식량안보를 대비하고, 지역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은 지난해 11월 17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종자의 날'을 해마다 8월 3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정일은 합평군 국화품종 최초 등록일이다.

군은 2010년부터 자체적으로 국화품종을 육종, '나비번영' 등 22개 신품종을 등록했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한 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 해마다 국화축제 등에 내보인다.

자체 품종 육성으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 종자산업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국화축제(국향대전)에 맞춰 다른 지역보다 7~10일 빨리 개화 시기를 조절한 현애국·화단국·분재국 등 신품종 개발 성과를 내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종자산업은 매우 중요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에 지자체 차원의 여러 사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집 찾아가는 한글 교실'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우수상'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집까지 찾아가는 한글교실 운영으로 주민 5070 명에게 한글을 깨우쳐 준 장성군이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성군은 지난 7월 30~31일 인제대 김해캠퍼스에서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48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출한 353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장성군은 노년·주인과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마을로 찾아가는 문해교육(한글 교실)'을 열어 기초 생활 능력 향상을 도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올해는 27곳에서 259명의 주민이 참여 중이며 현재까지 참여 주민은 5070명에 이른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선 거동이 불편해 한글 교

실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집까지 찾아가는 교육 딜리버리 서비스'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우리 군이 추진해 온 주민 평생교육,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복지 지원이 2년 연속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소외나 불평등 없는 군민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담양군, 농촌 유학 가족 체류시설 준공·입주

지방소멸 대응과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추진한 담양군의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이 준공돼 최근 입주식을 가졌다. <사진>

담양군의 농촌 유학 가족 체류 시설은 전남도의 농산 여촌 유학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행한 사업으로 농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거주 시설을 지원해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를 지키고 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건립됐다.

2023년 12월에 착공해 총면적 72㎡, 지상 1층 단독주택 건물로 금성면 석현리 3동과 용면 5동 등 총 8동을 조성했다.

이번에 준공된 농촌 유학 가족 체류시설에는 8 가구에 유학생 13명이 입주했다.



기존 민간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농촌유학생을 포함하면 2024년 2학기 담양 농촌유학생은 17 가구 25명으로 지난해 5가구 6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담양군은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학경비 지원과 작은 학교 살리기 특성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